

가정 예배 모범

- 2021_12_19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2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요엘 3장 1~ 8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까?(1-3절)

하나님의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로생활에서 귀환하여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을 약속하십니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만국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심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곳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기세등등하며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2) 하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같은 이방 나라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어떤 죄들을 책망하십니까?(4-8절)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성전의 은과 금과 보물을 노략하여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이 성전의 기물을 빼앗아 간 행동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단지 유대인을 괴롭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죄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헬라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 그들의 영토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유다의 어린 자녀들을 창기와 바꾸고, 술과 바꾸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유다 사람들에게 범한 잘못 그 대로 다른 나라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날이 될 것이며, 반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